

야마하뮤직코리아, 후쿠토메 히토시 신임사장 부임



 YAMAHA

2010년 3월, 야마하뮤직코리아(주)의 신임사장에 후쿠토메 히토시(51)가 부임했다. 후쿠토메 사장은 1958년생으로 일본 도쿄 출신이며, 게이오 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야마하 일본 내 영업 부서에 발령받은 것을 시작으로 독일 주재원으로 5년간 피아노 판매 기획부에서 재직하였으며(1990년 3월~1995년 12월), 그 후 2년간 오스트리아 지사장(1995년 12월~1997년 2월)을 거쳐 4년간 미국의 건반 영업 부장을 지내고(2000년 5월~2004년 12월), 일본 국내의 피아노 영업 부장 재임 중에, 올해 한국 지사장으로 부임했다. 피아노로 멜로디와 화음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어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연주를 즐겼다는 후쿠토메 신임사장은 멜로디 라인만을 연주하고 싶어서 플루트를 배우기 시작할 정도로 음악애호가이다.

한국이 동계올림픽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음악 무대에서도 재능이 있는 한국 연주자들의 엄청난 결과를 거두고 있어, 한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런 한국에서 일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밝혔다.

야마하는 1887년에 설립되어 음향과 악기, 영상기기뿐만 아니라 음악교육을 비롯한 정보기기, 미디어 서비스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힌 세계의 대표적인 문화기업이다. 2001년 8월, 야마하의 한국 현지 법인으로 설립된 야마하뮤직코리아(주)(www.yamaha-music.co.kr)는 양국 문화교류 증진과 한국 음악 및 음악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감동을 함께 만드는”이라는 브랜드 슬로건 하에 세계적인 명성의 그랜드 피아노를 비롯한 건반악기, 기타, 드럼, 프로페셔널 오디오, 관현악기 등 다양한 악기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야마하 아티스트 서비스 서울, 야마하음악교실, 야마하교회지원팀을 통해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신상품 발표회, 각종 악기전시회 및 연주회, 공연기획 및 협찬 등을 통해 한국의 음악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